

근대전환기 규방가사 <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 <식골색씨 설은타령>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정인숙(서울시립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이혼을 둘러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과 대응방식 |
| 2. 이본 현황과 작자의 문제 | 5. 맺음말 |
| 3. 구성 방식과 내용 전개의 특징 | |

1. 머리말

조선후기 사회는 내부의 변화 움직임을 축적해 가던 가운데 20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일상 속으로 신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삶의 변화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문학의 영역에서도 전통 장르의 지속과 더불어 변모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게 된다. 연구자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 설정과 용어상의 차이가 있으나,¹⁾ 이 시기는 바야흐로 중세에서

1) '근대계몽기'라 하여 청일전쟁(1894.6~1895.4)을 전후한 시기부터 경술국치(1910. 8)까지 시기를 제한하여 사용하기도 하고(고미숙, 『한국 '근대 계몽기' 시가의 이념과 형식』,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8, 179면) '개화기'라 하여 개항에서 20세기 초의 시기(권오만, 『개화기시가연구』, 새

근대로 전환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근대전환기’라 부를 수 있다. 이 용어는 중세에서 근대로 진행되는 문학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어느 특정시기로 분절하지 않고 문학의 변화를 유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 규방가사처럼 창작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작품내적 정보를 통해 시기를 가늠해야 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근대전환기의 시가 문학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통 시가 장르가 주 역할을 담당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조선시대의 대표적 장르인 가사와 시조는 지속적으로 창작되는 동시에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출판매체를 통해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창가나 신체시와 같은 새로운 형태가 선보여 전통 시가 장르와 함께 다양한 문학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근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부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신교육을 받은 남편과 그렇지 못한 아내와의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이혼의 원인이 되어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문학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문제화되었다.²⁾ 특히 시가 작품 중에 <식골색씨 설은타령>은 유학 간 남편을 기다리던 시골색씨가 이혼을 통보받고 한탄한다는 내용의 규방가사로,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여러 이본이 전할 정도로 당시 규중의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본을 검토하다보니 <식골색씨 설은타령>과 비교하여 내용이 상세하고 구성이 긴밀한 일련의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다. 특히 <시골여자

문사, 1989, 11면) 또는 갑오경장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시기를 제한하기도 한다.(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72~74면)

2) 예를 들면 이씨부인이 딸의 일생을 기록한 <고씨효절록>에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며 새로운 생활양식과 여학생을 접한 장씨 형제들이 가정의 재편을 명분으로 아내들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서경희, 「구여성의 소설 <고씨효절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슬픈사연>이라는 제목의 이본은 방대한 분량 못지않게 독서물로서의 특성도 갖고 있어 자세히 분석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더구나 내용이나 구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혼을 둘러싸고 '구여성'인 여성화자가 자아인식을 드러내는 점이 주목되었다. '슬픈 사연'을 전달하고는 있으나 결코 비극으로 치닫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점이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라 생각되었다.

본고에서 <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여성화자가 희생과 인내의 여성으로 고정된 전통 규방가사 속의 주인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데 주목하는 점은, 구여성을 인고와 희생이라는 획일적이고 고정된 이미지로 대상화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던 수동적인 존재들이 '근대적 자각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었던 삶의 조건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한 논의³⁾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근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통여성들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⁴⁾ 역사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구여성의 존재에 주목하려는 시도⁵⁾는 분명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신여성을 둘러싼 담론에 밀려 제대로 관심 받지 못했던 구여성의 존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이본 현황을 검토한 후, <시골여자 슬픈사연>을 중심으로 <식골색씨 설은타령>과의 비교를 통해 구성과 내용 전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여성화자의 자아인식태도와 대응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김민정, 「일제 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4)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64면.

5)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 『민족문학사연구』 19, 민족문학사학회, 2001.

2. 이본 현황과 작자의 문제

2.1. 이본 현황

유학 간 남편과 시골 아내의 이혼 문제를 다룬 규방가사는 현재 여러 편 남아 있다. 필자가 확인한 이본은 총 8종으로 다음과 같다.⁶⁾

- ① <시골색씨 설은타령>⁷⁾
- ② <시골여자 슬픈사연>⁸⁾
- ③ <시골색씨탄식가>⁹⁾
- ④ <시골여자 서련사정>¹⁰⁾
- ⑤ <시골녀자 서름사정>¹¹⁾
- ⑥ <시골여자 서련사정>¹²⁾

-
- 6) 이밖에도 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이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이 이본연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논의를 전개하는 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 7) 이본 ①은 『규방가사』 I(권영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12~117면)에 소개된 작품이다.
 - 8) 이본 ②는 『울진민요와 규방가사』(울진문화원, 2001, 198~208면)에 소개된 작품이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를 보내준 울진문화원 측에 감사드린다.
 - 9) 이본 ③은 「개화에 희생된 시골 여인의 하소연—영남 규방가사 시골색씨탄식가—」(류탁일, 『사대학예』 4집 교수논단, 부산대학교 사범대학학생회, 1973, 84~96면)에 소개된 작품이다. 제목 옆에 ‘일명 시골색씨 서른 사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동 ‘사들택’의 장본을 대본으로 소장하고 있던 몇 종의 작품을 대교하여 현대 철자법에 맞춰 실은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위의 논문, 81면)
 - 10) 이본 ④는 『역대가사문학전집』 25(임기중 편, 아세아문화사, 1998)의 1236번 작품이다.
 - 11) 이본 ⑤는 『역대가사문학전집』 41(임기중 편, 아세아문화사, 1998)의 1897번 작품이다.
 - 12) 이본 ⑥은 『역대가사문학전집』 41(임기중 편, 아세아문화사, 1998)의 1898번 작품이다.

⑦ <시골여자 삶은사정>¹³⁾

⑧ <시골여자 서른사정>¹⁴⁾

먼저 이본 ① <시골색씨 설은타령>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개화기 규방 가사’의 한 예로 자세히 검토되어 작품내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학사적 의의도 치밀하게 논의된 바 있다.¹⁵⁾ 특히 전통과 개화, 시골과 도시의 복잡한 대립 구조 속에서 ‘사람 노릇’을 해야 한다는 자아 각성이 구체화된 작품으로 평가된 바 있다.¹⁶⁾ 분량은 총 274구이고 내용상 계절적 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에 관한 특별한 표지는 없다.

이본 ② <시골여자 슬픈사연>은 총 513구의 장편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명확한 표지 아래 유기적 구성을 갖춘 작품이다. 이본 ①과 비교할 때 분량 면에서 239구가 많아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이본 ①과 차별되는 점이 많이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적이 없기에 더욱 주목되는 작품이다.

이본 ③ <시골색씨탄식>은 이본 ②와 상당히 유사한 작품이다. 총 506구로 분량 면에서 이본 ②에 거의 육박하고 구성상 계절적 표지도 갖추고 있다. 현대 철자법에 맞춰 고쳐서 소개하고 있다.

이본 ④ <시골여자 서른사정>은 총 508구로 분량 면에서 ②나 ③과 같이

13) 이본 ⑦은 『가사문학논고』(이동영, 형설출판사, 1977, 143~148면)에 소개된 작품이다.

14) 이본 ⑧은 「가사의 독자—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이원주, 한국어문학회 편,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82, 143면)에 제목, 작자, 제보자 등만 언급된 작품으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15) 서영숙, 「개화기 규방가사의 한 연구—‘시골색씨 설은타령’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4, 어문연구학회, 1985 ; 서영숙, 「근대전환기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인식」, 『어문연구』 38, 어문연구학회, 2004 ; 고순희, 「개화기 가사를 통해 본 여성담론의 전개양상과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여기서는 모두 이본 ①을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16) 서영숙, 위의 논문, 1985.

264 · 근대전환기 규방가사<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같다. 다만 표현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드러나고¹⁷⁾ 특별한 계절적 표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필사 상태가 좋지 않고 글자 모양도 명확하지 않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본 ⑤ <시골여자 서름사정>은 ④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분량도 총 508구로 같다. 다만 ④와는 달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명확한 표지를 갖추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필사 상태가 좋고 글자 모양도 정확하다.

이본 ⑥ <시골여자 서툰사정>은 필사가 중간에 끝나버려 작품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필사된 부분만으로 짐작하자면 내용면에서 ①보다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계절적 표지는 없다.

이본 ⑦ <시골여자 삶은사정> 역시 작품 전문이 소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가사문학관련 연구서¹⁸⁾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된 작품인데, 소개된 부분만을 보았을 때 이본 ②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본 ⑧ <시골여자 서툰사정>은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가사의 독자를 조사한 연구¹⁹⁾에서 제목과 작자, 제보자 등만 언급된 자료이다. 구체적인 해당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이상 총 8종의 이본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작품 전문을 확인할 수 없는 이본 3종(⑥, ⑦, ⑧)을 제외한 나머지 5종의 경우,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크게 이본 ①과 나머지 4종(②, ③, ④, ⑤)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사한 이본 가운데 이본 ①과 유사한 계열은 찾을 수 없었던 반면, 전문이 확인되는 4종은 모두 내용과 분량 면에서 유사한 계열로 묶일 수 있었다. 물론 ②, ③, ④, ⑤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나 ①에 비해 분량이 두 배 남짓 될 정도로 많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점은 확실

17) 예를 들면 이본 ①, ②, ③에서 '광주리'라 한 것이 이본 ④에는 '당새기'라 되어 있다.

18) 이동영, 앞의 책.

19) 이원주, 앞의 논문.

하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본 ① 보다는 오히려 ②, ③, ④, ⑤가 널리 유통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본 ②는 작품의 유기성이나 표현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판단되어 이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는 이본 ① <시골색씨 설은타령>이 주로 논의된 반면 다른 이본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²⁰⁾ 다만 ③ <시골색씨탄식가>가 간략히 언급된 정도이다.²¹⁾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던 이본 ①과, 나머지 4종(②, ③, ④, ⑤) 가운데 ②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2.2. 작자의 문제

이본에 따라 작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확인되는 것은 ‘권씨’ ‘남씨’ ‘박씨’ 세 가지이다. 먼저 권씨로 기록된 경우는 이본 ③과 ⑧이고, 남씨는 이본 ①과 ⑦, 박씨는 이본 ④, ⑤이다. 이본 ②와 ⑥은 작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²²⁾

먼저 ‘권씨’로 기록된 경우를 보면 ③에서는 ‘경북 영덕 동해안에 살던 ‘박씨 가문으로 출가한 안동 권씨 부인’으로,²³⁾ ⑧에서는 ‘영해 경수당 중

20) 서영숙은 이본 ①을 대상으로 하되 이본 ⑦과 ⑧을 언급한 바 있고(서영숙, 앞의 논문, 1985, 299면), 고순희도 이본 ①을 대상으로 하되 이본 ④, ⑤, ⑥을 언급한 바 있으나(고순희, 앞의 논문, 221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점을 보완 검토하고자 한다.

21) 권보드래는 1920년대 문화를 연구하면서 ‘구여성의 설움’이라는 주제로 <시골 색씨탄식가>를 거론한 바 있다.(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8~16면)

22) 이본 ②는 작품 말미에 구송자와 채록자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윤금계 구송 이규형 채록’) 작자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고, 이본 ⑥은 작품이 중간에 끝나버려 전문을 확인할 수 없기에 작자에 대한 기록 여부도 알 수 없다.

23) 류탁일, 앞의 논문, 81면.

266 · 근대전환기 규방가사<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부 권씨'로 되어 있다.²⁴⁾ 여기서 '영해(寧海)'란 경북 영덕군 영해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려~조선시대 동해안의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다가 1914년 3월 일본의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 이후 영덕군에 포함된 지역을 말한다. 또한 '경수당(慶壽堂)'이란 영해면 원구리 112호에 위치한 무안박씨(務安朴氏) 영해파(寧海派) 박세순(朴世淳, 1539~1612)의 종택(宗宅)으로, 박세순의 호 '경수당'을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²⁵⁾ 따라서 ③과 ⑧의 기록을 종합하면 작자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박세순의 종택 경수당의 종부(宗婦)인 안동 권씨 부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남씨'로 기록된 경우를 보면 ①에는 작자를 '南氏夫人(영해원구)'으로, 출처는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 및 영덕군 영행면 일대'라 되어 있다.²⁶⁾ 그런데 여기서 작자소개에 '영해원구'라고 덧붙인 것은 '영해면 원구리'를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⑧에서 작자 권씨가 영해 경수당의 종부이고 경수당 주소가 '영해면 원구리'인 것과 일치한다. 한편 출처로 소개한 '영행면'은 '영해면'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결국 이본 ①의 경우 작자가 '남씨부인'으로 소개되고는 있으나, 작자에 관한 정보는 작자를 권씨로 기록한 ③, ⑧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⑦에서는 작자를 경북 영덕군 태생으로 무안박씨에게 출가한 '영양남씨(英陽南氏)'로 소개하고 있다.²⁷⁾ 박씨 가문의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③과 ⑧의 기록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박씨'로 기록된 경우는 ④와 ⑤인데, 모두 작품의 말미에 작자에 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먼저 ④에서는 '영득군 영디면 원구동 박시가 부인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득군'은 '영덕군', '영디면'은 '영해면'

24) 이원주, 앞의 논문,

25) '영해 경수당'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97호로, 경수당 안에 있는 오래된 향나무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124호로 지정되어 있다.

26) 권영철, 앞의 책, 112면.

27) 이동영, 앞의 책, 143면.

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여기서 ‘박시가 부인’은 작자가 박씨라는 것이 아니라 박씨 집안으로 출가한 ‘박씨 가문의 여성’이란 의미이다. ⑤에서는 ‘영덕군 영해면 원구동 박시 부녀작이라’ 되어 있는데 ‘영해면’은 ‘영해면’의 오기(誤記)로 보이고 ‘박시 부녀’ 역시 ‘박씨 가문의 부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작자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무안 박씨 가문으로 출가한 안동 권씨 혹은 영양 남씨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골 여성의 설움을 다룬 이 작품은 영해 지역을 포함한 영남 지역 일대에서 두루 전승되면서 폭넓은 여성 독자층을 형성하고 다양한 이본이 파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3. 구성 방식과 내용 전개 특징

3.1. 계절적 구성의 명시와 ‘여름’ 계절의 부각

앞서 이본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본 ① <시골색씨 설은타령>(이하 <설은타령>)이 총 274구인 것과 비교할 때 이본 ② <시골여자 슬픈사연>(이하 <슬픈사연>)은 총 513구로 239구 이상 분량이 많다. 이러한 분량의 차이는 형식의 차이와도 관련되는데 <설은타령>은 계절의 추이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면서도 특별한 표지가 없는 것과는 달리 <슬픈사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을 텍스트 내 소재목으로 내세우면서 사시가(四時歌)의 구성 양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²⁸⁾ 그러면서 각 계절의 전환에 따라 그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처음 서두부분인 봄의 경우는 두 이본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되나,²⁹⁾ 여름, 가을, 겨울의 경우는 <설은타령>이 대개 계절 변화에 대한 설

28) ■의 기호 옆에 각 계절을 제시하고 있다.

268 · 근대전환기 규방가사<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명이 짧은 데 비해 <슬픈사연>에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내용의 전개
가 자연스럽다.

<1>-1

취전밭 울가지이 호박꽃 피었스니
나의 마음 서울낭군 그리워라 그리워라
딴밭 뛰어나가 얼스얼얼 안아줄까 <설은타령>

<1>-2

■ 여름

가는세월 빠르건만 오는여름 드디도다
화초년년 푸른빛은 여름비취 이제온다
더운가슴 무쳐잡고 서쪽하늘 바라보며
우리님 오실날만 하루이틀 기다리기
일일이 삼추같다 <슬픈사연>

<2>-1

총총세월 흘으는듯 가을바람 선듯부니
임타신차 총살갓치 신작로로 다라갓치 <설은타령>

<2>-2

■ 가을

흐르는 유수세월 덧없이도 빨리간다
봄가고 여름가니 가을이 또왔구나
춘거추래 추우춘풍 기후순환 모순인가
가을바람 산들불어 님가신차 풍우같네 <슬픈사연>

<3>-1

산에도 눈이 풀풀 들이도 눈이 풀풀
스방팔도 막혀서 서울소식 돈절한이

29) “후원초당 봄이드니 마른잎에 속님다고/ 꽃피우난 짜순바람 스람마을 훗터내
니”<설은타령> “후원초당 봄이드니 마른잎에 새씩나고/ 꽃피운 따신바람 사람
마음 훌허내네”<슬픈사연>

임은점점 멀어지고 희는점점 김허간니 <설은타령>
 <3>-2

■ 겨울

잠이든지 들이든지 함박눈이 꺾꺾와서
 사방팔도 오갈위에 은세계를 이뤘구나
 눈위에 모든자국 매화주렴 분명하다
 깨끗한 맑은설광 시름많은 이간장을
 더욱한층 수란하다 먼데가신 우리낭군
 소식조차 끊어지고 해는점점 흘러간다 <슬픈사연>

<설은타령>은 <1>-1에서와 같이 여름에 대한 구체적인 계절적 전개가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채전밭 울타리에 호박꽃이 피었다’는 것으로 계절 순환을 나타낸다. 그런 다음 느닷없이 ‘대문 밖 뛰어나가 얼싸 얼얼 안아 줄까’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남편이 언제 어떻게 도착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갑작스런 재회가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슬픈사연>은 <1>-2에 서처럼 봄에서 여름으로의 시간이동이 보다 자연스럽다. ‘가는 세월 빠르 건만 오는 여름 더디도다’ 라거나 ‘화초년년 푸른빛은 여름빛이 이제 온다’ 등의 구절을 배치함으로써 계절적 추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또한 남편의 등장에 앞서 봄 못지않게 여름에서도 남편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이 구구절절 서술되고 있어,³⁰⁾ 뒤에 있을 남편과의 재회를 더욱 간절하게 한다. 가을 대목도 <2>-1에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짧은데 <2>-2에는 내용이 자세하다. ‘봄 가고 여름 가니 가을이 또 왔구나’ 라거나 ‘춘거 추래(春去秋來)’ 등의 내용을 첨가하여 가을로 계절이 접어든 상황을 보다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겨울 대목도 마찬가지로 <3>-1보다는 <3>-2에서 함박눈으로 세상이 은세계가 된 모습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겨울로의 계절 변화를 실감나게 한다.

30) <1>-2의 인용구절 다음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이 39구나 서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편과의 재회 대목이 나온다.

계절에 따른 분량 배치에 주목할 때 <설은타령>과 <슬픈사연>은 계절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된다. 전자의 경우 봄 86구, 여름 60구, 가을 59구, 겨울 69구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봄’의 서술 비중이 높은 데 비해 후자의 경우 봄 144구, 여름 153구, 가을 85구, 겨울 131구로 봄보다 오히려 ‘여름’의 서술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설은타령>에서는 봄의 비중이 높고 여름은 가을, 겨울의 분량과 비슷한 정도인데, <슬픈사연>에서는 봄보다는 여름이 더 많은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작품에서 ‘여름’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유학 간 남편이 돌아오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서두의 ‘무정하다 우리낭군 근년 여름 한번 간 후 운산백일 멀리 막혀 편지조차 한 장 없네’라는 대목을 보면 ‘근년 여름’에 남편이 한 번 다녀갔던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마지막의 ‘봄 가고 여름 와서 오래간만 그리던 님 다시 한 번 만나보고’라는 대목을 보면 내년 여름에도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작품에서 ‘여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받은 사건이 벌어진 계절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여름 대목이 <슬픈사연>에는 상당한 분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설렘과 뜻밖의 이혼 통보에서 받은 충격, 설움 등이 상당히 자세하게 부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작품의 핵심적인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내용도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게 된다.

그러면 <슬픈사연>에서 남편과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여름 대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설은타령>에서는 <1>-1에서와 같이 ‘나의 마음 서울낭군 그리워라 그리워라’ 라는 구절 바로 뒤에 갑자기 ‘대문 밖 뛰어나가 얼싸 얼얼 안아줄까’라는 재회의 장면이 배치되어 다소 생경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슬픈사연>에서는 남편의 등장 대목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고 남편에 대한 화자 자신의 심정도 매우 사실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흥미롭다.

<4>

여광여취 나의 심사 미칠 듯 하울적에
 난데없는 구두소리 귓가에 얼쩡들려
 놀라 다시 살펴보니 날산 양복 간단행군
 문전에야 도달했네 반가울사 우리낭군
 두려운듯 반가운듯 시골쪽 양안에는
 양복쟁이 한번 보니 사자같이 두려우며
 가슴이 울렁인다 구습가정 소생으로
 뛰는 심신 진정 없이 허다한 나의 사정
 누굴보고 위로할고 푸른수양 목단장에
 오래간만 그리던님 만나기는 만났으나
 어이 이리 쓸쓸한고

<슬픈사연>

<4>는 <슬픈사연>에서 서울로 유학 갔던 남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여광여취(如狂如醉)’ 즉 미친 듯 취한 듯 이성을 잃을 지경인데, 그 순간 난데없는 구두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놀라서 살펴보니 남편이 날씬한 양복차림으로 문전에 도착해 있는 것이다. 늘 기다려왔지만 정작 그 만남의 순간이 다가오자 시적 화자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 꿈에 그리던 남편이 문 앞에 와 있는데 반가우면서 동시에 ‘두렵다’. 시골 아낙네의 눈에 비친 ‘양복쟁이’는 도시의 멋쟁이로서가 아닌 ‘사자’ 같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다보니 가슴이 울렁거리고 심신이 진정되지 않는다. 낯선 구두소리, 날씬한 양복차림, 사자 같은 두려움 등은 시골색시와 서울낭군과의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이상으로 볼 때 <슬픈사연>은 구성면에서 명확한 계절적 표지를 갖추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구절을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런 내용 전개를 돕고 있다. 특히 ‘여름’ 대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작품의 클라이맥스라 할 만한 남편과의 재회, 이혼 통보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3.2. 남편-아내의 거리감 증폭과 도시-시골의 격차 인식

<설은타령>에서 시골 여성이 느끼는 소외감은, 님과 연관된 ‘차-총살-신작로’와 ‘삼밭’에 ‘홀로 서 있는’ 자신과 대조되어 나타나 있다.³¹⁾ 그런데 <슬픈사연>은 남편-아내의 거리감이 증폭되어 나타나 있고 도시-시골의 격차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여름에 몇 날 동안 구구한 맺힌 한을
한 말씀도 못여주고 상식 없는 무식말로
만지정찰 쓴다한들 첫줄 한자 안보시고
비비 찢어 버릴거라 예라 그만 붓을 놓자 <슬픈사연>

남편과의 거리감은 <5>에서와 같이 시적 화자의 자신감 상실로 나타난다. 마음에 맺힌 원한을 한 마디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 설령 편지를 쓴다 하더라도 남편은 첫 줄 한 글자 보지 않고 찢어버릴 것이라고 지레 포기한다. 홀로 시부모를 모시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왔지만 정작 남편을 향해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뿔뿔하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감이 생긴 근본 원인은 남편의 서울 유학에서 기인한다. 남편은 본래 ‘만득애자(晩得愛子)’³²⁾로 가문의 사활을 책임지고 경성으로 유학을 떠난 귀한 존재이다. 애초부터 여러 면에서 남편과는 처지가 달랐던 것이다.

<6>
가고오는 허다세월 서울낭군 상봉한들

31) 서영숙, 앞의 논문, 1985, 304면.
32) ‘만득애자’란 늙어서 낳은 사랑스런 자식(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만득애자 경성유학 막중세업 와여해서” <슬픈사연>)

무정한 님의 심정 철석같이 나를 잊어
연약한 이내몸에 피골이 상련하다

<7>

편리한 문명시대 오고가는 무정전화
경편철도 핑장하다

<슬픈사연>

<6>에서 시적 화자는 남편을 상봉한다 하더라도 무정한 남편은 자신을 잊어버렸을 거라 단정한다. 피골상련(皮骨相連)의 추한 모습으로 자신을 형상화함으로써 이후에 나오는 ‘날씬 양복’ 차림의 남편과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교육도 받지 못한 데다 연약하고 볼 품 없다고 느낄수록 남편과의 거리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물론 <7>에서와 같이 시적 화자도 편리한 ‘문명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한다. 전화, 철도 등 신문물을 통해 일상생활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시골 아낙네의 삶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³³⁾ 서울은 편리한 문명시대의 대표적인 수혜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곳으로 유학을 간 남편은 새로운 질서 속에 편입되어 갔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시골색시는 새로운 시대와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골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의 문제는 여타의 규방가사에도 확인된다.³⁴⁾ <설은타령>에 비해 <슬픈사연>은 근대전환기의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시골 여성이 느끼는 대도시 서울과의 거리감을 더

33) 다른 이본(③, ④, ⑤)에는 “편리한 문명시대 오고가는 무선전화/ 경편철도 핑장하나 우리게는 무용이고”(밑줄 필자)라 되어 있는데 <슬픈사연>에만 “우리게는 무용이고”라는 대목이 빠져 있다.

34) “차히히라 세상사 살펴보니/ 시대와 풍조가 변천하야 옛과 지금 다르도다/ 어찌한 여자들은 고등학교 출신하야/ 양머리 콧콕구두 보석반지 금시계로/ 썬하는 자동차와 달달하는 전차로서/ 동서남북 왕래하고 사회상에 출입하야/ 남너 평등 오늘시대 훌륭한 여자로되/ 슬프다 우리 어찌 산간벽지 생존하야/ 산정 지를 부업에서 방아짓고 물여다가 음식공지 직분이요/ 엄동설한 찬바람에 팔래하기 고생이요/ 장장한일 더운날에 농사바라지 원수로다”<화전가>(권영철, 앞의 책, 363~364면)

274 · 근대전환기 규방가사<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육 잘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3.3. 내용의 유기적 전개와 흥미위주의 독서물로서의 성격

한편 <슬픈사연>에는 내용의 유기적 전개를 의식한 점이 포착된다. 앞서 계절 변화와 관계된 구절이 배치됨으로써 계절적 구성이 자연스러운 점도 이와 관련되는데, 여기서는 앞뒤 내용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8>-1

광지리 옆에 찌고 남물캐러 동산가니(중략)
저녁하늘 비긴구름 서울철리 나가거든
나의 한을 실어다가 우리임께 전하여라
종일토록 캐고캐도 한광주리 못되어서
어나듯 해가지니 돌아갈길 바쁘구나 <설은타령>

<8>-2

광주리 옆에 끼고 나물캐러 등산가니(중략)
오고가는 저구름아 서울철이 너가거든
구구한 나의 한을 우리님께 전하여라
춘풍삼월 긴긴날에
꽃보고 오는 나비 향내 맡고 오는 벌이
서로 섞여 왕래함을 녀을 잃고 구경타가
종일토록 뜯은 나물 한광주리 못채우고
일력이 뜨지 없어 돌아서기 바쁘구나 <슬픈사연>

위의 대목은 시적 화자가 동산에 나물 캐러 갔다 늦게 귀가하게 된 내용을 담은 부분이다. 그런데 <8>-1에서 ‘종일토록 캐고 캐도 한 광주리가 못되어서’라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8>-2에서는 중간에 몇 구절(굵게 표시한 부분)이 첨가됨으로써 내용의 합리적 연결을 돕고 있다. 즉 춘풍 삼월에 봄나물을 캐러 나갔으나 ‘꽃을 찾는 나비와 벌을 녀을 잃고 구경하다

보니' 종일토록 깨어도 한 광주리를 못 채웠다는 것이다. '왜' 못 채웠는 지에 대한 이유가 친절히 서술되어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은 내용면에서 합리성을 추구한 흔적이자, 독자를 위한 '배려'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작품 말미에는 독자를 의식한 부분도 들어가 있다.

<9>
 잠없는 야심경에 첩첩이 박힌 한을
 두어자 기록하나 오자낙성 고이하니
 독자제는 널리하량 하시고 대소 마시오
 그져어는 마시오
 꽃같은 청춘일월 광해변기 홀로서
 결발연분 잇을 손가 객수청천 곳은비에
 심신이 산란하여 형님에게 진심으로 부탁하네 <슬픈사연>

<9>는 작품의 마지막 대목으로, 잠이 오지 않는 한밤중에 첩첩이 박힌 한을 기록하는데 오자낙서(誤字落書)³⁵⁾가 괴이하니 독자제(讀子弟)는 널리 하량(下諒)하고 대소(大笑)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슬픈사연>은 구송자와 채록자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작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데, 이는 규방가사가 하나의 독서물로 정착되면서 실제 작자가 갖는 의미는 탈색되고 오히려 흥미진진한 읽을거리로 전파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슬픈사연>의 흥미 요소는 앞서 <4>에서와 같이 남편과의 재회 대목이 실감나게 표현되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한 시골색시 외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사실적으로 전달되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은타령>에는 늦게 귀가한 며느리를 훈계하는 시어머니의 발화 장면이 매우 간단하게 제시된 데 비해³⁶⁾ <슬픈사연>

35) '오자낙서'란 글자를 잘못 쓰거나 빠뜨리고 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76 · 근대전환기 규방가사<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에서는 아주 장황하게 부연되어 있다.

<10>

일촌에 누구누구 몇몇이 다갔더나
시속이 청년색씨 면면이 다그런가
봄이오면 꽃에설음 여름오면 잎에설음
춘하추동 사시절에 설음고통 무서워라
부끄러운 젊은시절 남편없다 탄식하고
일거월세 애태우니 내간장도 너나같다
구시대의 우리들도 입문한지 사흘만에
애정한번 못이루고 책잡지고 절간가서
근수십년 아니와도 저러타시 탄식할까

<슬픈사연>

<10>은 봄나물 캐러 갔다 늦게 귀가한 바람에 석반이 늦어져 시어머니
께 꾸중을 듣는 대목이다. 시어머니는 춘하추동 사시절에 온통 설음으로
지내는 며느리가 안타깝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신도 ‘내 간장도 너나 같다’
고 하여 며느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듯 보인다. 그러면서도 ‘구시대의 우리
들’도 시집은 지 사흘 만에 애정 한 번 못 이루고 남편이 공부하러 절간으
로 가서 수 십 년 동안 오지 않아도 저렇게 탄식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타
박하고 있다.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 감싸줄 수도 있으련만,
여성화자는 마음을 몰라주는³⁷⁾ 시어머니가 야속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주변 인물들의 목소리를 보다 자세히 들려주는 점은 <슬픈사연>을 더욱
흥미롭게 해준다. 선행 연구에서 이본 ⑦<시골여자 젊은사정>의 경우를
들어 “개화기 신소설 속의 한 여주인공의 이야기와 같은”³⁸⁾ 작품이라 평한

36) “우리난 너의 시절 책잡지고 절간가서/ 두달 석달 잇다와도 저른쌀 아니했다”
<설은타령>

37) “세정없는 시어머님 남의 사정 모르시고/ 석반이 늦었다고 무수히 걱정하여
엄중하게 묻는 말이”

38) 이동영, 앞의 책, 152면.

바 있는데, <슬픈사연>이야 말로 내용도 흥미롭고 구성도 치밀하여 한 편의 소설처럼 읽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이혼을 둘러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과 대응방식

<설은타령>이나 <슬픈사연>이 주목되는 이유는, 20세기 초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시골여성의 설움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억울한 사건이 핵심적으로 부각된 점이 문제적이다.

그러면 근대전환기에 이혼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상황은 어떠했을까? 조선시대에 본처가 철저한 위계 하에 첩과는 다른 고유한 입지를 가진 '정실부인'으로 인정되고, 남편은 첩을 두었더라도 정실부인보다 철저히 낮은 위치에 두고 첩으로 하여금 그러한 위계를 따르도록 계도한 것과는 달리,³⁹⁾ 20세기 초 '일부일처제'라는 새로운 근대적 민법이 도입될 무렵에는 '사랑'이 없는 가정은 악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일부일처제가 법제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랑에 기반한 결혼이 정당화되었고, 이는 곧 사랑이 식으면 그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기도 했다.⁴⁰⁾ 따라서 오히려 남성들에게는 본처와 이혼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당시 신학문과 신문물을 접한 남편이 본처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어 자주 거론되었다. 이러한 이혼문제에는 대개 새로 만난 여성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던 듯한데,⁴¹⁾ 남성들은 교육을 받아 서로 의사가 통하는 사이라야 행복한 결혼생

39) 정지영, 『조선후기의 첩과 가족 질서』, 『사회와 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25면.

40)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여성과 역사』 9, 한국여성사학회, 2008, 95면.

41) <고씨효절록>에서 장씨 형제들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도, 서울에서 학

278 · 근대전환기 규방가사<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유연애리는 지상의 가치를 강조하며 신
 식 부부관계를 주장하였다.⁴²⁾ 실제로 20세기 초에 간행된 잡지에는 교육
 받지 못한 아내에 대해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다음을 보도록 하자.

1 현대 남자에게 잇대는 리혼의 원인을 나는 내가지로 난혼야 살아어 보라합니다.

첫째로 리혼은 남자의 횡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벌써 시대에 뒤
 지는 말이라 할지 몰으나 남자는 아즉것 자기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높히 두고
 순결한 녀성의 자태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구식녀자 그들에게는 소위 신식
 녀자의 일종의 노리개인 신학식(新學識)이 없다고 해서 데스부인이면 「나도
 싨타 너도 싨타」하는 버릇을 여디것 가지고 잇는 까닭입니다. 거듭 말하면 자
 기들의 수치인 줄을 전혀 몰으는 듯이 한갓 양(羊)과 가티 유순하기만한 재래
 의 녀성들을 아모 큰 탈 업시 박대를 하며 「몽매한 내 녀편네와는 리혼이다
 리혼이어」하고 최후의 비명(悲鳴)을 어리석게 웨칩니다. 이와 가티 그들은 과
 연 멀정한 정신병자 노릇을 아즉것 못면한 것입니다.⁴³⁾(밑줄 필자)

2 요사히 나의 남편은 별안간 정신병이 드럿난지 독립생활을 할 만하고 지

식이 잇는 여자니 안헤인니하고 나더러 양머리 들고 공부하지 안흐면 리혼을
 하겠다고합니다. 나도 생각은 간절하지만 아희들은 옥글옥글 싨코 밥 지어먹
 고 옷 싨고 지을 사람도 업슬 싨만안이라 시부모님들은 학교가 다 무언야고
 벼락이 내린이 참 엇저면 조흔년지외 이런 형편임도 불고하고 남편은 몰리해
 남편에게 줄니년 줄 아시것만 부모님들은 아단 이제 새삼스리 가락춨주지 안
 혼 친정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업고 도모지 엇제스면 조흔지모르겠습니다. 드
 런니 근후회는 이런 여지를 위하야 일하신단니 좀 조흔 방책이 업슬까요?⁴⁴⁾

교를 다닌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학생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고 있다.(서
 경희, 앞의 논문)

42)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한
 국여성학회, 2006, 74면.

43) 최의순, <오로지 男子에게>, 『女性之友』 제1권 제2호, 1929년 2월.(이화형 외,
 『한국근대여성의 일상문화』 5(결혼), 국학자료원, 2004, 178면 재인용)

44) 낙원동 김씨, <엇더케할가요>, 『權友』 창간호, 1929년 5월.(위의 책, 196~197면
 재인용)

(밑줄 필자)

3 아직 신구(新舊)가 다 실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인 세문에 그러한 비극이 지상(地上)에 충만하였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죄로 엇질수 업시 희생이 되지 않을수 업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의 여유를 얻어 야학(夜學)갓튼 대 충실히 단이는 것이 덕이 될 줄 압니다.⁴⁵⁾

11 은 『여성지우(女性之友)』라는 잡지에 실린 ‘現下朝鮮의 離婚原因이 男子에게 있느냐? 女子에게 있느냐?’라는 주제로 벌어진 ‘남녀지상토론대회’ 내용 가운데 최의순(崔義順)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오로지 남자에게’라는 제목에서와 같이 여기서는 모든 원인은 남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신학식이 없다고 하여 제 부인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라며 신랄하게 비난한다.

그런가 하면 2는 『근우(謹友)』 창간호 ‘질의란(質疑欄)’에 실린 글로 ‘양머리를 틀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상담을 해온 낙원동 김씨의 사연이다. 공부는 하고 싶지만 우글대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야 하고 더구나 시부모도 학교가 뭐냐 벼락을 내리는 처지라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녀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글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으로 3에서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죄로 어쩔 수 없다’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의 여유를 얻어 ‘야학’에 다닐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 키우기 바쁘고 시부모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녀가 야학에 다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설령 남편이 바라는 대로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공부를 해서 ‘지식 있는’ 여성이 된다고 한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즉 전통 가정 속의 여성들에게 신학문의 교육이 가능한 것이었는지는

45) <야학에 다닙시다>, 『謹友』 창간호, 1929년 5월.(위의 책, 197면 재인용)

280 · 근대전환기 규방가사<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미지수이고 또한 그런 교육을 통해 과연 남편이 바라는 여성이 될 수 있었
을지도 미지수인 것이다.

이렇게 당시 교육을 받지 못한 구여성이 이혼에 직면하는 사례는 상당
히 많았는데, 그런 문제가 <설은타령>, <슬픈사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는 사실은 새삼 주목되는 점이다. 앞서 3장에서 <슬픈사연>이 내용과 구
성 면에서 <설은타령>과 변별되는 점을 논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슬픈
사연>의 여성화자가 ‘이혼’을 둘러싸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설은타
령>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1. 이혼을 계기로 한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강화

작품에서 갈등의 기폭제가 되는 핵심적 사건은 남편의 이혼 통보이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설은타령>과 <슬픈사연>의 여성화자는
미묘한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 사실 두 이본 모두 텍스트 내에 남편의 목
소리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
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설은타령>에는 ‘나도 어려 남과 같이 학교 가서
배웠다면 이런 변고 없을 것을 후회한들 쓸 곳 있나’라는 대목이 있어 신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짐작된다. 실제로 남
편의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하더라도,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설은타령>의 여성화자에게 일종의 콤플렉스였고 그것이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그녀는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슬픈사연>에는
이러한 구절이 빠져 있다.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변고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는 발견되지 않는다.

<11>

학문을 몰랐으니 생존경쟁 문화시를

내어찌 알았을꼬(중략)
 탄식한들 쓸데있나 설어한들 무엇하면
 배울때는 지나가고 어릴때도 지나갔네 <슬픈사연>

<11>에서 <슬픈사연>의 여성화자는 학문을 몰랐기에 지금의 생존경쟁 사회를 알지 못했다고 시인한다. ‘배울 때도 지나가고 어린 때도 지나갔기에’ 이제 와서 배울 수도 없고 또한 배운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⁴⁶⁾ 비록 남편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탄식해도 소용없고 슬퍼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설은타령>에서 발견되는 신교육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슬픈사연>에는 배제되어 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이 속상하고 억울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로 보고자 애쓰는 모습이 포착된다.

<슬픈사연>에서는 ‘이혼 통보’가 여성화자에게 억울함과 한스러움을 안겨준 사건임과 동시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한 계기로도 작용한다. 즉 이혼문제에 직면하면서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남편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단한 존재라 한다면 시골색시 또한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물론 <설은타령>에서도 시골색시가 ‘사람됨’과 ‘사람노릇’이라는 근본적 정신을 자각한 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⁴⁷⁾ <슬픈사연>의 경우 자전적인 술회를 통해 자아인식을 강화해 가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2>
 나도 오직 좋은 기출 쌍원이 자랄적에

46) 물론 <설은타령>에도 “베플씨는 지나갔니 어릴씨는 지나갔니”라는 구절이 있어 이미 배울 때가 지났음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실을 직시하는 측면보다는 학교에 가서 배우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는 측면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본다.

47) 서영숙, 앞의 논문, 1985, 10면.

만사의 무안으로 이팔이구 방년시절
부모설전 구슬같이 장래에 기린만복
금석같이 있었거든 오늘날 이간장을
꿈에나 생각할까

<13>

시집온지 칠팔년에 오고가는 허다세월
뉘를 위해 살았으며 뉘를 오직 기다렸노
춘풍도리 꽃필 때와 추우추동 낙엽시에
눈물로 벼슬 삼아 세월을 재촉할제

<14>

유학가신 우리 낭군 목적인바 졸업하고
양당존전 입택하여 안락한 가정생활
일편단심 축복하여 태산같은 우리님이
하해같이 깊은지라 확실히 머물때에
천만가지 님을 위해 천만가지 나를 위해
육체를 노력하여 마음을 설세없이
앞날의 모든 희망 철석같이 믿어오며
허다한 곳은 고생 낙원으로 믿어오며
진심갈력 하였드니

<슬픈사연>

<12>는 여름 대목의 초반부에 나오는 대목이다. 공상을 다 떨치고 천천히 걸으며 생각해 보니 자신도 본래 귀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다. 꽃다운 시절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장래의 기린만복(麒麟萬福)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오늘날 이런 고통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다. <13>에는 시집와서 7~8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눈물로 벼슬 삼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연이 나타나 있다. 오로지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버텨온 셈이다. <14>에서는 남편이 서울 유학을 마치고 양당존전(兩堂尊前) 귀택(歸宅)하면 안락한 가정생활이 보장될 거라 믿고 그동안 얼마나 고된 삶을 참아왔는지 돌아보고 있다. 당시 서울은 신학문을 공

부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이를 통해 시골에서는 꿈꿀 수 없는 안락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남편의 유학을 통해 여성화자 역시 새로운 삶을 꿈꾸었고 허다한 고생도 달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전적 술회는 ‘자기정체성’의 확인과도 관련된다.⁴⁸⁾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아에 대한 인식도 구성되는 것이다. <슬픈사연>의 여성화자는 이혼에 직면하여 자신의 성장과정을 회고하고 7~8년간의 시집생활을 되짚어 봄으로써, 자신도 귀한 존재라는 점을 새삼 인식하고 그동안 미래를 위해 힘껏 애써온 자신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물론 거기에는 억울한 심정이 강하게 묻어나 있지만, 그러한 억울함은 그녀가 보냈던 시간들이 그만큼 진실 되고 의미 있었다는 인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다.

4.2. 여성 연대의식을 견지한 대응방식

한편 <슬픈사연>은 여성화자의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설은타령>과 변별된다. <슬픈사연>에서는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닌 그런 경험을 공유하거나 그런 경험에 공감하는 여성 전체의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작품의 여성화자는 ‘나’가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전체를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15>-1

원통하다 너팔즈야 안히디여 남편에게

스랑흔변 맛못보고 사라서 무엇흐노

48)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92면.

이달도다 **넋신세야** 사람되어 이세승의
스람노릇 못한거시 사라서 무엇흐나 <설은타령>
<15>-2
원통하니 **우리신세** 안해되어 남편에게
사양한번 말못하고 살아서 무엇하노
사람되어 이세상에 사람노릇 못해보고
살면오직 길이있나 염나차사 원망일세 <슬픈사연>

<15>-1에서 ‘원통하다 내 팔자야’ 또는 ‘애답도다 내 신세야’라 하며 철저히 ‘나’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과 달리 <15>-2에서는 ‘원통하니 우리 신세’라 하여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혼을 둘러싼 마음의 고통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갈 문제로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슬픈사연>에는 ‘우리’ 혹은 ‘구여성’이라는 동류의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16>
슬프다 이세상에 구속과 압박으로
철망속에 헤매이는 불쌍한 **구여성들**
끝없이 슬픈사정 광대한 청년남자
무지로 몰랐거든 어느 누구 이해할꼬(중략)
슬프고 가련하다 무광일월 **구여성들**
전생에 무삼죄로 수심청춘 **우리들이**
무광한 낭만세상 장장이 거쳐가니
유유하신 창천이여 청춘을 살피소서
꽃같은 **우리청춘** 유수세월 던져두고
삼십사십 반평생을 넘없이 다시올까 <슬픈사연>

<슬픈사연>에는 <16>에서와 같이 ‘구속과 압박으로 철망 속을 헤매는 불쌍한 구여성들’의 슬픈 사정은 청년 남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해

하지 못한다는 노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갖가지 말로 위로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 여성이 아니면 절대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는 점은 전통 규방가사에서 발견되는 ‘여성 연대’의 측면과 관련된다고 본다.⁴⁹⁾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함으로써 슬픔을 해소하고 새롭게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계절 가운데 이야기가 끝나는 겨울 대목은 시기상으로 앞으로 올 계절을 기대할 수 있어 어찌 보면 희망적일 수 있다. 산과 들에 눈이 녹고 꽃피는 봄이 오고 또 다시 여름이 오면 그때는 남을 만나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말을 모두 다 하리라 다짐함으로써 결말이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⁵⁰⁾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나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노릇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은 그러한 인간의 보편 감정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왜곡된 공간이다. 그렇기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풀어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자신의 미묘한 감정까지 속속들이 보여주어 감정의 혼돈 속에 휩싸여 있는 한 인간의 솔직한 내면까지 들여다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시적 화자는 배신한 남편도 원망스럽지만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하는 자신도 역시 원망스러워한다.⁵¹⁾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무정하고 야속한 남편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백번 옳은 일일 터이나, 감정은 그렇게 쉽게 이성적으

49) 선행 연구에서 <텐동어미화전가>를 논의하면서 여성 연대의 의미를 언급한 바 있다.(박혜숙, 「<텐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50) “끝없는 하소연을 개개이 총집하여/ 심중에 담아두고 삼동선달 지낸후에/ 산과들에 눈이녹고 봄가고 여름와서/ 오래간만 그리던님 다시한번 만나보고”

51) “나를버린 님의건만 나는어찌 못잊는고”

286 · 근대전환기 규방가사<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의 혼돈과 갈등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공감대를 더욱 넓힐 수 있었다고 본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슬픈사연>이 <설은타령>과 변별되는 특징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설움과 슬픔을 풀어내고 이를 여성 전체와 공유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슬픈사연>의 특징은, 19세기 <텐둥어 미화전가>와 같은 규방가사에서 확인되었던 점이다. 비탄으로 끝나지 않는 결말은 현실을 직시하는 삶의 지혜와 여성 연대의 울타리를 통해 가능했다고 본다.

한편 규방가사에서 거론되었던 이혼문제가 당시 새로운 시가 양식인 ‘창가’를 통해서도 다뤄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녀자의 설움>⁵²⁾이라는 작품은 <슬픈사연>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내용이 흡사하다. 그런데 <슬픈사연>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꾸짖는 대목이 들어가 있을 뿐 남편의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데 반해, <녀자의 설움>에서는 아내와의 문답식 대화를 통해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혼 사유를 묻는 아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자체에 허물이 있다’고 한 남편의 대답은 매우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다.⁵³⁾ 부모님께 불효한 것은 없지만 아내 자체가 허물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이 삽입됨으로써 작품 내 갈등

52) 창가의 양식을 갖춘 작품으로 『계몽기 시가집』(김학길, 한국문화사, 1990, 39~40면)에 소개되어 있다.

53) “여보시오 랑군님 내 말 들어보/ 무슨 일로 나의 몸을 떨쳐버려요/ 당신이 류학한 후 혼자 있어서/ 부모님을 효성으로 모셔왔지요/ 부모님께 불효함이 없지요마는/ 당신이 자초에 허물있어요”<녀자의 설움>(밑줄 필자, 원문에는 ‘자초’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자체’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은 심화되고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결말은 어떤 의지도 없이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만을 암시하게 되는데,⁵⁴⁾ 이는 <설은타령>이나 <슬픈사연>의 결말과는 다른 점이다.

처음 본고를 구상할 때 규방가사 <설은타령>, <슬픈사연>과 함께 <녀자의 설음>도 분석하려고 했으나, 논의의 초점이 흩어지고 주제가 집중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일단 본고에서는 <슬픈사연>을 중심으로 <설은타령>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앞으로는 근대전환기의 다른 시가 양식을 통해 도시 남편-시골 아내의 갈등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시적 화자의 초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양식의 변화와 내용의 재편 과정 속에서 어느 대목이 선택되고 혹은 새롭게 편입되는지 또는 누구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혹은 배제되는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동일한 소재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안에서 형상화되는 인물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전통의 규방가사가 아닌 창가라는 새로운 양식을 통해 당시 공론화되었던 이혼담론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후속과제로 삼는다.

주제어 : 근대전환기, 규방가사, 이혼담론, 구여성, 여성화자, 자아인식

54) “뚝뚝 떨어지는 나의 눈물은/ 애줄없이 옷자락만 적실뿐이라/ 청산의 무덤이 되고 말을가/ 바닷가의 고기밥이 되고 말을가/ 한 폭 치마 쌓인 눈물 큰 강물 되고/ 생각사록 더욱 더욱 눈물이 난다/ 동창에 비친 달이 더욱 싫고나/ 후원동산 심은 꽃이 슬퍼하노라” <녀자의 설음>

<참고문헌>

1. 자료

- 『계몽기 시가집』 (김학길, 한국문화사, 1990)
『규방가사』 I (권영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역대가사문학전집』 25, 41(임기중 편, 아세아문화사, 1998)
『울진민요와 규방가사』 (울진문화원, 2001)

2. 논저

- 고미숙, 「한국 ‘근대 계몽기’ 시가의 이념과 형식」,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8.
고순희, 「개화기 가사를 통해 본 여성담론의 전개양상과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권오만, 『개화기시가연구』, 새문사, 1989.
김민정, 「일제 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류탁일, 「개화에 희생된 시골 여인의 하소연—영남 규방가사 시골색씨탄식가—」, 『사대학예』 4집 교수논단,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생회, 1973.
박혜숙, 「<텐동어미화전기>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서경희, 「구여성의 소설 <꼬씨효절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서영숙, 「개화기 규방가사의 한 연구—‘시골색씨 설은타령’을 중심으로—」, 『

- 어문연구』 14, 어문연구학회, 1985.
- _____, 「근대전환기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인식」, 『어문연구』 38, 어문연구학회, 2004.
- 이동영, 『가사문학논고』, 형설출판사, 1977.
-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 『민족문학사연구』 19, 민족문학사학회, 2001.
- 이원주, 「가사의 독자—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회 편, 『조선 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82.
- 이화형, 『한국근대여성의 일상문화』 5(결혼), 국학자료원, 2004.
-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정지영, 「조선후기의 첩과 가족 질서」, 『사회와 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2004.
- _____,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과와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06.
- _____,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여성과 역사』 9, 한국여성사학회, 2008.

[Abstracts]

The characters and female speaker's self – recognition in *Gyubang – Gasa* <*Sigolyeojaslpunsayeon*> on Modernizing Period – focu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Sigolsaeksiseoluntaryung*> –

Jeong Ins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s and female speaker's self–recognition in *Gyubang–Gasa*(閨房歌辭) <*Sigolyeojaslpunsayeon*> on Modernizing Period. Especially it's on the focus of comparison and analysis of <*Sigolsaeksiseoluntaryung*>.

The characters of <*Sigolyeojaslpunsayeon*> are as follows. The first, there are definite seasonal signs like spring, summer, fall, winter. And there is an expansion of part of summer. The second, the distance between husband and wife is amplified, and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is recognized. The third, there is an organization of contents and characters of text for reading.

Female speaker in <*Sigolyeojaslpunsayeon*> shows self–recognition through the expression of self–thought after the notice of divorce. And she also shows practical action with sense of solidarity of women.

【Key words】 : modernizing period, *Gyubang-gasa*, a discourse on divorce, old fashioned woman, female speaker, self-recognition

· 정인숙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130-74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길 13(전농동 9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전자우편 : insookj4608@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3월 2일에 심사완료되어 3월 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